



전주양현초 · 중 학생회, 환경정화 캠페인 눈길

전주양현초등학교(교장 경명근)와 전주양현중학교(교장 김윤하) 학생회는 지난 17일 만성지구 일대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 동네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양현초 · 중학교 학생회가 중심이 돼 각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5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또한 전주시의회 송영진 · 신유경 의원이 현장에 나와 학생들과 함께 캠페인을 펼쳤다.

환경캠페인은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만성지구 전체를 돌며 공원과 도로의 쓰레기 등을 치우는 환경정화 활동과, 성장기 학생들의 간접흡연 예방 위해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 거리 흡연 자제 홍보 활동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을 주도한 전주양현중 이유민(2년) 부회장은 "학생들이 중심이 돼 지역사회와 함께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진정한 학생자치 실현과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 뿌듯하다"면서 "앞으로 깨끗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시민의식을 위해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드림스타트, '내고장 문화 체험' 진행

진안군은 지난 17일~18일까지 1박 2일간 관내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가정 20명과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내고장 탐색! 가족힐링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가족의 유대감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회기로 나눠 진행하며 17일 열린 캠프에서는 마을탐방, 연잎밥 · 연꽃등 · 산약초 향주머니 만들기, 족욕체험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24일 2회기로 진행되었으며, 캠프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코로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문화 체험을 하게 되어 너무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족캠프를 통해 가족을 서로 이해하고 우리 고장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제26회 마이산컵 전국 탁구대회 성료

진안군은 지난 9월 17일에서 18일까지 이틀간 문예체육회관에서 제26회 마이산컵 전국 탁구대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진안군체육회와 탁구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시기로 대회 개최가 지연되다가 3년 만에 실시됐으며 선수단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하며 이틀간 자웅을 겨뤘다.

경기 결과로는 개인 단식 8개부 중 군산시테러클럽 원재희 씨가 우승했으며, 단체전 5개부 중에서는 김형경탁구클럽 정태권(선출), 정요한, 남수미 씨가 우승했다. 진안군에서는 개인 단식에서 진안마이산동호회 성미경 씨가 3위를 차지해 진안군을 빛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교대, '미래교사 아카데미' 운영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준)는 2022년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미래교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6회에 걸쳐 운영된다.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강사를 섭외해 미래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수업은 토론, 프로젝트 및 심화 탐구 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이뤄지며, 아카데미가 끝난 후에는 우수 참여 학생을 선정해 시상도 할 계획이다.

박병준 총장은 "초등교육 현장에서 활약할 예비 교원들이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소프트테니스 선수단 전지훈련 유치

순창군, 필리핀 국가대표 20일부터 17일간... 14명 훈련 돌입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 순창군에서 필리핀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단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글로벌 스포츠 메카로 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필리핀 소프트테니스 대표팀은 코치진 4명과 선수 10명 등 총 14명으로 꾸러졌으며,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7일간 순창군 공설운동장 소프트테니스구장에서 전술강화 등 집중훈련에 돌입한다.

필리핀 대표팀은 지난 2018년 8월에도 순창군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날씨와 상관없이 4개월 운동이 가능한 전천후 실내 다목적 구장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잘 갖춰져 스포츠 인프라와 최고의 행정서비스에 만족하여 올해도 전지훈련지로 순창을 선택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필리핀 대표팀이 파트너 훈련을 할 수 있는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과 제1고 소프트테니스부가 있는 것이 순창군의 큰 장점이다.

순창군은 필리핀 대표팀이 방문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선-순창군 수송대책을 마련하여 군에서 직접 미중을 나갈 예정이며, 훈련기간 동안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체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세심한 지원을 아



끼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대표팀의 전지훈련 돌입 전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를 실시하는 물론 훈련기간 동안 경기장 소독, 손소독, 발열체크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차단방역을 위해 만반의 준비도 해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지훈련은 스포츠대외 유치와 더불어 순창의 경제활성화를 책임지는 중요한 부양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순창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일 기자

이상을 천보 대표이사, 전북대 발전기금 1억원 기부

(주)천보 이상을 대표이사가 전북대학교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며 1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은 19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김동원 총장과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증식을 열고, 기부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이상을 대표이사가 발전기금을 기부한 것은 전북대 양오봉 교수(화학공학부)와의 오랜 인연 때문이다. 이 대표이사는 양 교수와 정밀화학 분야에서 오랜 기간 협력과 교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문·사회 분야 등 이공계 이외의 학문분야의 고른 발전이 대학 내 균형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이 대표이사의 평소 신념에 따라 전북대 인문대학 및 사회과학대학, 예술문화연구소, 인간생활과학연구소와 체육·스포츠 과학산업 연구소에 지정 기탁돼 학문 분야의 균형 발전에



쓰일 예정이다.

이상을 대표이사는 "올해 전북대와 지역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전북대와 협약을 맺고 상생 협력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대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 투자와 협력에 나설 계획"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용규 나눔재단 이사장, 과학우주청소년단 전북본부장 취임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전북본부는 19일 서거석 전북본부장이 전북도교육감으로 취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전북 나눔재단의 이용규 이사장을 9월 1일자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취임 본부장인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포함한 운영위원 20명의 이취임식도 가졌다.



이용규 선임 본부장은 전주신화학교 총동문회장과 전북대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주)성전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은 청소년들의 과학적 탐구능력을 배양하고,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맞아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우주 꿈나무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거석 사무처장은 "디너리호의 성공적 발사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아졌다"면서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에서는 전국적인 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를 유치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북에서도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우주과학교육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본부는 매년 전북항공우주과학경진대회를 통해 고무동력기, 모형로켓, 에어로켓, 전동비행기, 물로켓, 드론 등의 다양한 경기가 찾아가는 청소년 과학교실"을 통해 AI 로봇 제작 및 코딩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규 본부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전북에서 미래우주과학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전북이 우주강국 인재육성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드림스타트, 주거환경개선 지원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16일, 남원은누리신협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해 지원하는 행복한집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양 기관은 주거환경에 취약한 가정에 친환경 한지벽지와 장판을 교체해 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었다.

한편 주거환경개선에 참여하게 된 아동과 양육자는 "제방이 깨끗해져서 너무 좋았요", "집안 분위기가 환하게 밝아져서 행복해요"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남원시 치매와 여성가족과장은 "급변하는 환경속에 면역력강화가 중요시 되는 만큼, 아동이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호지도사 양성교육 개강

진안군(군수 전춘성)과 전북노인복지효문화연구원(총재 소순갑)은 19일 오후 2시 진안군민자치센터 강당에서 제2기 진안군 효(孝)지도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개강식에는 교육생과 작년 배출된 호지도사 및 내·외빈이 참석해 가운데 개강행사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제2기생으로 선발된 14명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약 8주간에 걸쳐 10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호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교육수료자들은 호 지도사로서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기관 및 단체 현장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품성교육을 실시하고, 효의 근본인 공경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게 된다.

전춘성 군수는 "여러분들은 1기 선배분들이 만든 길을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익산시 · 한전 · SKT,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맞춘

익산시가 한국전력공사·SK텔레콤과 함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19일 정현을 시장과 김영환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 최낙훈 SK텔레콤 스마트팩토리COO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부살림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서비스는 1인 가구 전력사용량과 통신데이터를 분석하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인공 지능서비스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소와 다른 패턴이 발견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경보 알람 SMS가 발송돼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는 별도의 기기나 장치를 설치할 필요 없이 한전과 SKT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생활 간섭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초기 비용이 들지 않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독거노인, 홀몸 장애인, 장애년층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성과 효과성 평가 이후 정식서비스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코로나19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삼기초 이찬송 학생, 전국과학발명품대회 우수상

삼기초등학교 이찬송(6학년)이 제43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회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대회로 올해는 17개 시·도에서 1만3,880점이 출품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찬송 학생은 "어머님과 엄마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명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 휴대용 LED등'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쓰임새에 따라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 휴대용 LED등'은 어두운 작업환경 및 실내외조 기르기, 캠핑 활동 등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김동명 교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들과 늘 함께하며 연구하는 선생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기초등학교는 2022년 전북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이정민(6년)은 은상, 신예인(6년), 신인후(5년), 전예준(5년), 전예성(4년)이 동상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총학생회, 릴레이 헌혈 운동 전개

전주대학교 49대 ABLE 총학생회는 19일 본교에서 대학생 릴레이 헌혈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헌혈 운동은 전주사대하 BSG 공동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와 대학직접자사 공동으로 전주대학교 ABLE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헌혈 참여 캠페인 및 자원봉사 활동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전주대학교는 재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주대 공식 SNS 및 총학생회 SNS를 통한 홍보, 헌혈 홍보 포스터 전시회 개최,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했다.

첫 번째로 헌혈에 동참한 이현 총학생회장은 "사람을 실천하는 헌혈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며, 특히 총학생회 인원이 자발적으로 백혈병 어린이 재단에 헌혈증서를 기부하기로 해 더욱 뜻깊은 거 같다며, 헌혈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